

<중국권역별.성별연구단 - 서부지역>

보시라이 충칭시 서기, 차기 지도부 선출 불투명

-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유력시되는 보시라이(薄熙來) 충칭시 서기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내 최고 지도부의 권력 투쟁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 - 보시라이 서기의 경우 중국 정치 파벌 중 하나인 태자당(太子黨)¹⁾의 대표적인 인물로, 과거 라오닝성 성장, 상무부 부장(장관) 등을 역임하였음.
 - 특히 2007년 충칭시로 부임한 이래, 경제의 고속성장과 부패척결 등을 이끌며,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으로 부각되었음.
 - 그러나 2008년 그의 아들 보과과(薄瓜瓜)의 문란한 사생활이 폭로되는 등 그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는 공청단²⁾의 견제로 알려져 있음.
- 이번 왕리쥘(王立軍) 충칭시 부시장의 미국 망명 요청 사건이 홍콩 등 중화권 언론과 반정부 매체에 의해 보도되면서 보시라이 서기의 거취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.
 - 왕리쥘 충칭시 부시장(전 공안국장)은 충칭시가 2008년부터 시작했던 ‘범죄와의 전쟁(打黑)’을 지휘했던 핵심 인물로서 보시라이(薄熙來) 충칭시 서기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음.
 - 왕 부시장이 지난 2월 6일 돌연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자 이를 두고 중화권 언론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음.
 - 특히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를 견제하는 세력이 왕 부시장을 이용해 보시라이 서기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고,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영사관에 망명 요구를 한 것이란 보도가 주를 이룸.
 - 비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시라이 가족의 비자금 해외 밀반출로 알려짐.

표. 왕리쥘 충칭시 부시장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일지

일 자	내 용
2월 2일	충칭시 정부 홈페이지, 왕리쥘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의 인사발령 공지
6일	왕 부시장, 쓰촨성 청두시(四川省 成都市) 소재 미 영사관 방문
6일	일부 매체 왕리쥘 부시장 망명설, 태자당과 공청단의 권력 암투설 제기

- 1) 중국 공산당의 고위 정치 지도자의 자녀들 중 정치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지칭함.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‘혁명 간부(revolutionary cadre)’ 즉 제1과 2세대 지도자들의 정계 은퇴가 진행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, 대표적 인물로는 쟁쩌민, 리펑, 쟁칭훙, 시진핑, 보시라이, 다이빙궈, 왕치산 등이 있음. 제 5세대에서는 36명 가량이 태자당으로 분류됨. 그 중 시진핑, 보시라이, 리위안차오 등은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혹은 유력함. 주장환, 2011. 「중국 제5세대 정치 엘리트」, 『국가전략』, 17권 3호 2011년 가을호. 세종연구소.
- 2)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준말이며, 제1서기 출신인 후진타오의 정치적 성장과 더불어 조직된 파벌임. 대표적 인물로는 후진타오, 류원산, 왕리취안, 류옌둥, 리커창, 왕양 등 이 있음. 주장환. 2011. 같은글

7일	왕 부시장 신병인도와 관련하여 황치관 충칭 시장 측과 국가 안보부 직원 측과 충돌 끝에 국가 안보부 추진(邱進) 副부장 측에 의해 베이징으로 압송
8일	충칭시 정부 공식 블로그, 왕 부시장 휴직 관련 공지
9일	중국 외교부, 충칭시 왕리권 부시장이 청두시 소재 미 영사관에 1일간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공식 발표
10일	보 서기의 후임으로 공청단 계열 저우창 후난성 서기 내정설
13일	중국 지도부 양회 개막 전 사건 수습 합의설
21일	보시라이 서기 사퇴설

자료: 각종 자료 종합

■ 사건 발생 3일 이후, 중국 외교부가 브리핑을 통해 왕리권 부시장의 미국 영사관 방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힘.

- 주중 미국 대사관 측은 왕리권 부시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1일 가량 영사관에 머무른 사실을 공개하였으나, 그밖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.
- 중국 정부 측에서 내부 언론 통제를 하고 있어, 정확한 보도가 이어지지 않은 채, 중국판 페이스북인 웨이보(微博)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만 확대 되고 있음.

■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에 대한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, 올해 10월 열리는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회 진입은 불가능해지게 됨.

-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며 중국 공산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함.
- 이번 18대 전국대표대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정치 세대가 교체되며, 시진핑(習近平) 현 국가 부주석이 차기 주석직에 오를 것이 유력시 되고 있음.
- 보시라이는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유력시 되었으나,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며, 경쟁 구도에 있는 공청단 계열의 왕양(汪洋) 광둥성 서기가 상무위원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<자료: SCMP, 홍콩 명바오(明報), 보쑤(boxun.com), 로이터, 신화통신, 중앙일보 등>

(오종혁 연구원)